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

우 성 섭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오직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는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이 인류사회발전의 력사적총화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69페이지)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지니고있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다른 모든 존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게 되며 세계와 자기 운명을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된다.

자주성이 사람, 인민대중의 사회적본성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옳바로 실현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오직 사람,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것이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적대계급사회에서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여왔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인민대중은 장구한 력사적기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계급사회의 교체가 진행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적대계급사회의 교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형태에서의 변화를 가져왔을뿐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억속에서 해방되지 못하였다.

적대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못한것은 그것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였기때문이다.

사적소유와 그에 의하여 산생된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불피코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열시키고 계급적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을 가져오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유린,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람은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할뿐

아니라 풍부한 정신생활을 누리며 정신문화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풍족하게 살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서로 결합되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인간의 이러한 본성적요구가 옳바로 실현될수 없다.

오늘 자본주의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번창한것 같지만 안으로는 날로 우심해지는 모순으로 하여 더욱더 썩어가고있다.

자본가들은 상품판로가 점점 더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는 각종 수단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불구자로 되어가고있다.

물질생활에서의 이러한 기형화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분화도 더욱더 커가고있다.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이 류포되어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고있으며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어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정신생활이 더욱더 빈궁화되어가고있다.

자본가계급은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회유, 기만하고 매수하는 교활한 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반동적통치기구를 파쑈화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을 발전시키려면 물질생활이 유족해지는데 맞게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과 정치생활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사람들이 부패한 물질생활과 돈의 노예로 될것을 요구하기때문에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정신문화적발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쓰고있다. 한편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정치적지위와 역할을 높이는것이 저들의 정치적지배권을 위태롭게 하기때문에 근로자들의 정치생활발전을 극력 억제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없앨수 없을뿐아니라 물질생활과 빈궁하여지는 정신문화생활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장성하는 자주적요구와 악화되어가는 정치생활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할수 없다. 이와 같은 불평등과 불균형을 없애고 근로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 정치생활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자본주의는 파멸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이 모든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의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멸망은 력사의 필연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것이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오직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기의 운명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는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한다. 집단주의는 사람이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보람있게 살기 위한 요구일뿐아니라 사회적집단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창조적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는것은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우선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사회관리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성격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사회의 성격은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인민대중은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야만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고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정권의 주인이다.

국가정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자면 국가정권부터 틀어쥐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의 손에 장악되어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실시하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는 혁명적당과 그의 령도를 받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 사회주의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혁명적당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모든 정치활동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하며 그 실현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진행되도록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사회주의정권은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함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철저히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정권의 주인일뿐아니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려면 국가 정권과 함께 생산수단을 틀어쥐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사회주의적소유관계가 확립되어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게 된다.

사회주의는 또한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크게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3대분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사회생활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과도 관련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당과 국가의 올바른 정책과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에게 값높은 정치생활을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누구나 다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간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에게 평등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하여준다.

누구나 다 고르롭게,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 념원은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안정된 일자리와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을 고르롭게 누리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에게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당과 국가의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선진적인 사상문화의 참다운 창조자, 진정한 향유자가 되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닌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준비되며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게 된다.

이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오직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할것이다.